

# 정화의 작은이들



재속 프란치스코 토론토 성 요한 비안네 형제회  
Secular Franciscan Order St. John Vianney Fraternity of Toronto

형제회: 성 김대건 성당 849 Don Mill Rd, Toronto, ON M3C 1W1  
연락처: 22 Royal Palm Dr, Thornhill, ON L4J 5R3  
Tel: 905-889-6518 E-Mail: sunlee333@hotmail.com  
형제회 일시: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10:00 시

제 40 호

11 월 형제회 소식

2008 년 11 월 29 일

## 오늘 월례회 순서

- 오전 10 시 - 리따 수녀님 영성 강의
- 오전 11 시 - 미사
- 오전 11 시 45 분 - 월례회
- 오후 12 시 30 분 - 터키 성지순례 설명회
- 오후 1 시 10 분 - 친교

## 형제회 소식

- 다음 달 월례회는 12 월 20 일(토), 예수성심 성당 친교실에서 오후 12 시~3 시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차편이 없으신 한맘 성당 소속 회원들은 오전 11 시 미사 후 출발예정이오니 미사에 참례하시고 함께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11/22(토), 한맘성당 요셉회 점심식사 접대에 30 여명의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여 정성껏 만든 음식을 제공하고 프란치스코 정신으로 친절하게 봉사하여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께 큰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였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12/5(금), St. Francis Table 에서 Homeless 분들에게 점심으로 한국 음식을 대접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기도 부탁 드립니다

- 김진택 형제님과 김승자 자매님의 장녀이신 '사랑의 선교회' 소속 김영임 테레시나 수녀님께서 다음 달 12/8(월) 오후 4 시 30 분, 인도 캘커타에서 종신서원을 하실 예정입니다. 축하해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경자(테레사) 자매님께서 허리 척추 수술을 조만간 Scarborough General Hospital 에서 하실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수술과 건강 회복을 위하여...

- 지난 11/18, 향년 89 세로 선종하신 박정엽(프란치스카) 할머니는 회원은 아니셨지만 매년 많은 액수의 북한 선교 후원금을 기부하셨습니다. 고인의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위하여...
- 병환 중이나 역경에 처한 회원들을 위하여...

## 사부님 영성의 향기 (7)

### '와타미의 라이벌'

봉사자 이선영 ofs

“형제들이여 지금까지 진전이 거의 없다시피하니, 주 하느님을 섬기기 시작합시다.” (1 켈라노 103)

2000 년 도쿄 주식시장 1 부에 상정하여, 현재 일본 외식사업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와타미 주식회사의 창업자 와타나베 미키는 “와타미의 라이벌은 어디입니까?”라고 질문하는 어느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제의 와타미입니다.” 주변은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어느 하나라도 개선되는 것,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가장 ‘와타미다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곧 어제의 ‘와타미’보다 나은 오늘의 ‘와타미’를 라이벌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극기이지요. 와타나베 미키를 외식산업계의 달인으로 만들어 준 것은 자신을 라이벌로 삼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듭거듭’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이상의 글을 차동엽 신부님께서 쓰신 ‘무지개 원리’라는 책에서 읽고,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 가는 원리도 이것이구나.”하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사신 분의 대표자 격은 예수님을 닮으시려고 끊임없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하여 매일같이 회

개의 삶을 사시면서 그것도 모자라 자매인 죽음을 맞이하시기 얼마 전에는 “형제들이여 지금까지 진전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 주 하느님을 (다시) 섬기기 시작합시다.”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스승이신 성 프란치스코 사부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전례력으로 새해에 해당되는 대림 시기가 11/30(월)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사부님 표양을 본받아 주 하느님을 다시 섬기기 시작합시다!

## 회계 보고

2008 년 10 월 31 일 현재

내역	전월 이월금	월 수입금	월 지출금	현 잔고
회비	15,133.57	9,620.00	17,174.15	7,579.42
선교 후원금	5,395.43	110.00	0	5,505.43
도서 구입	1,538.83	1,153.00	1,684.32	1,007.51

## 입회를 하면서

입회반 오귀주 카타리나

평소와는 달리 마음이 차분하지 못하고 허둥대는 마음으로, 조금 늦게 피정 장소에 도착하였다.  
10/10(금)~10/12(일), 2박 3일간의 피정 주제는 ‘하느님 뜻으로의 부르심과 응답’이었으며 둘째날 미사 중에 입회식 예절이 있었다.

지원반 공부를 1년간 하면서 계속 내 마음에는 “프란치스코의 삶을 살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이 마음을 흔들었으며, 평소 강의나 세미나, 성경 공부에는 열심히 참석하며 입으로는 떠들었지만 정작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없었다.

10/11(토), 입회식 날 덩든한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하여 입회 예절 중 회칙을 전달 받고 신부님께서 타우 십자가를 목에 걸어 주시는 순간, 나는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과 준비도 안된 부족한 저를 불러 주심에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도록 울었다. 주님께서는 한 계단 한 계단 내가 오를 수 있도록 지켜보시며 이끌고 이끌어 주심을 알게 되었으며 주님의 크신 축복 속에 나는 기쁨과 감사의 또 다른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셋째 날, 강의를 듣고 묵상하면서 내가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 온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으며 생명을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보게 되었으며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예”하고 기쁜 마음으로 입회반에서 열심히 배우고 익혀 사부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을 결심하였다.

주님! 감사합니다.

## 윗뜰에 도마도

길정자 마리아 ofs

둥글 둥글 둥근 도마도가 줄지어 달려/  
햇빛 주신 하느님께 감사 찬미 드리며/  
태양 빛 받아 고운 빛/  
울타리 위 덩굴 호박 꽃 무색케 했네/  
빨간 것 골라 따서 우리 식탁 꾸미고/  
우리 식구 건강 관리 큰 몫을 하고/  
이웃 사랑 나눔에도 한 몫을 했네/  
어느덧 가을 바람 찬 바람이 몰려와/  
고운 색깔 고운 마음 모두 다 실어 갔네/  
벌 나비 춤추던 풍경화도 함께 떠나 갔나/  
양상한 가지만이 가을거지 재촉하고/  
창조된 짧은 생명/  
창조주 뜻에 따라 보람있게 살았으니/  
내 남은 생애 너를 살피 살라는가/  
앞집 지붕 위에 흰 서리 조차 내렸구나/  
춘 삼월 지나 초 여름 다시 올 줄 누가 몰라/  
웬지 아쉬운 마음도 내일이면 가시리

